

조손가족 연구의 최근 동향과 향후 기독교 상담의 방향 고찰 : 룯기의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박 안 나*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조손가족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조손가족을 위한 기독교 상담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이후 조손가족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조손가족을 하나의 가족 유형으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하면서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전문적 상담'을 강조한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가정의 본질을 담고 있는 성경을 통해 가족기능을 이해하고자 가장(家長)의 부재로 남은 자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룯기를 살펴보고 그 결과 '가족 지속성'과 '돌봄을 통한 안식의 회복'을 통해 공동체와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성경적 가족기능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손가족을 위한 기독교 상담은 조손가족이 이 두 가지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그 방향이 된다. 먼저 조손가족 구성원,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를 맡는 결정은 가족의 지속성을 위해 이미 기여한 것임을 지지하며 가족을 재정의 하도록 돕고, 각 조손가족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 정한 회복을 위해 조(祖)와 손(孫)이 자발적인 돌봄을 하도록 그 고취와 실행을 구체적으로 돕는 가족상담의 사례개념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최신 조손가족 연구 동향을 통해 조손가족을 위한 가족상담의 본질과 성경적 가족기능 향상의 구체적 적용을 고찰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조손가족, 기독교 상담, 상담 연구 동향, 가족기능, 룯기

• 논문 투고일: 2021년 3월 24일

• 논문 수정일: 2021년 4월 29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6일

*헤세드 상담센터 실장

I. 여는 글

조손가족은 성인 자녀 가족의 해체로 조부모가 전적으로 손자녀의 양육을 맡게 된 가족으로 외환 위기 이후 이혼율의 영향을 받아 급증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도 함께 높아져 관련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이전 시기의 조손가족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이 시기의 연구들이 조손가족의 실태를 보고하고 조부모와 손자녀의 적응적 특성을 밝히는데 기여했으나 조손가족을 문제가 잠재하는 대상으로 보고 부적응과 부정적인 면을 부각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김원경, 전제아, 2010; 김경호, 소순창, 2011).

2010년 이후에도 조손가족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의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문제 연구 동향만을 분석하거나(김승희, 2016) 손자녀 양육 연구 중 질적 연구만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이영애, 방은령, 2018). 어떤 연구 주제나 대상에 대하여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 제안의 기초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학문 활동이다(김계원 외, 2011). 조손가족은 자활 능력이 없는 가장 취약한 가정 중의 하나로 우리 사회의 이혼율 증가 추세를 볼 때 향후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조손가족 연구 동향 분석이 부재한 '2010년 이후'의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 보고 향후 상담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상담 연구가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민기채, 2011; 송혜림, 김유경, 조영희, 2012).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조손가족 관련 연구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요 경향성을 확인하고, 그 시사점을 따라 향후 조손가족 상담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되 기독교 상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10년 이후 조손가족 연구의 연도별, 분야별, 연구방법론별 경향은 물론 연구대상별, 연구주제별 경

향을 분석하고 최근 연구들이 제안한 심리상담적 제언도 살펴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조손가족을 위한 기독교 상담의 방향성을 논하고 그 적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분석 방법

연구 동향 분석 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표된 조손가족 연구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주요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조손가족’, ‘조손가정’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해당 기간에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된 109개 연구 중에서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 연구는 제외하고, 제목과 초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담 또는 심리와 관련이 없는 연구 또한 제외하였다. 학술대회 자료의 경우 해당 연구가 논문으로 발표된 것만 인정하여 최종 총 77편의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의 분석항목과 기준은 연구를 분석하는 목적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선행연구에서 다룬 항목을 분석 기준으로 삼아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김계원 외,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이전의 조손 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원경, 전제아(2010)의 기준인 연구 발표, 연구 방법, 연구 주제 및 내용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김계원 외(2011)가 제안한 상담 연구 동향의 평정영역과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이 기준과 분류유목들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김원경, 전제아(2010)의 연구가 ‘조손’에 관련된 논문을 다룬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조손가족’과 관련된 연구로 대상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해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대상 연구들 중 추가하거나 제외할 것이 있는지 면밀히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 ‘연구대상별’ 분석은 조손가족 손자녀의 소분류를 평가 지침서의 분류에 따라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청소년으로 하였고, ‘연구방법론별’ 분석은 김원경, 전제아(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중재는 제외하고 평가 지침서와 Creswell(2003)이 제안한 분류 유목인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질적 혼합연구에 문헌연구만을 더하였다. ‘연도별’ 분석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1년 단위로 하였고, ‘분야별’ 분석은 김원경, 전제아(2010)의 연구의 기준인 학회가 점차 통합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위 단계의 분류만을 사용하였다.

2. 분석 결과

1) 조손가족 관련 연구 발표 동향

(1) 연도별 발표 동향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조손가족’ 관련 연구 수는 77개로, 2000년대 조손 관련 연구 73개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연간 동향을 보면 2013년부터 점차 줄어들어 2017년부터는 매년 5편 이하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감소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 내 조손가족에 대한 특례조항이 포함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고(여성가족부 2007; 김경호, 소순창, 2011) 2011년에는 조손가족을 위한 복지 시범 사업 ‘희망사다리’가 4개 지역에서 실시된 것(박수선, 2013), 즉 그동안 주장해온 정책들이 실제로 제도로 구현되는 정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2) 분야별 발표 동향

학술지별 발표 동향을 보면 조손가족 관련 연구가 게재된 학술지는 총 52종로 2010년 이전보다 20종 가까이 늘었다. 52종의 학술지 가운데 27종이 2010년 이후 등재지로 선정된 '신생 학술지'이며 2010년 이후 발표된 조손가족 논문 중 50%가 이 신생 학술지들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사회 변화에 발맞춘 분야 즉, 복지와 상담, 복지와 교육 등 학제 간 통합 분야에서 조손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복지 분야와 가정·가족 분야가 주도했던 2010년 이전과는 달리 2010년 이후에는 확연히 주도하는 분야가 없이 사회학 분야, 아동·청소년 분야, 심리상담 분야에서 등 다양한 통합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된 것도 같은 이치이다.

(3) 연구방법론 동향

연구방법론은 2010년까지는 양적연구가 약 70%를 차지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47%로 줄고 질적 연구는 19%에서 37%로 증가해, 전체적인 수는 여전히 양적 연구가 더 많지만 질적 연구와의 차이는 많이 줄어들어 조부모의 양육과 손자녀의 적응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대 상별로 보면 조부모 연구는 양적 연구가,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질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혼합연구가 1%에서 7%로 늘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상담분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상담 프로그램 연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교육프로그램(전보영, 조희선, 2011)과 집단상담(서홍란, 김양호, 2010; 김혜경, 2012), 미술치료(박윤미, 전수경, 2014; 김현경, 강영숙, 2017; 안재희, 2018), 모래놀이치료(심희옥, 2016), 표현예술치료(원성원, 2016)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적용 연구가 수행되었다.

(4) 연구대상별 발표 동향

2010년 이전까지는 조부모 혹은 손자녀를 각각 대상으로 하는 단세대

연구가 81%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조부모를 대상 연구가 약 70%를 차지했다(김원경, 전제아, 2010). 초기에는 조손가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질적 가장인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조부모 연구는 전체 연구의 41%로 감소를 보였고 손자녀 연구가 증가해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10여년 간 조부모 연구가 한편도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도 있었으나 손자녀에 대한 연구는 매 해 꾸준히 수행되었다. 여전히 양적으로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많으나 손자녀 연구가 증가하면서 그 차이는 감소했다. 더 나아가 손자녀 연구는 유아, 아동, 청소년 등 세분화 되어 연구되기 시작했고,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처음 등장했는데, 이는 신혼기 이혼 비율이 높아진 영향과 조손가족이 증가하면서 손자녀 나이가 다양해진 영향 그리고 조손가족이 형성된 초기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발달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김고은, 2015; 박희숙, 2012, 남수경, 2019).

또한 조손가족 구성원 개인이 아닌 ‘조손가구’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조손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로 2010년 이전에는 단 두 편이던 가계 연구가 2010년 이후 10편으로 늘어났다. 조손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장승옥, 권은정, 2010; 윤혜미, 장혜진, 2012, 박선희, 조계표, 2019), 사례관리(박수선, 2013), 실태조사(강미희, 2011), 시범사업 관련(송혜림, 김유경, 조영희, 2012), 생활비원천(황명진, 2014)의 주제를 다룬 연구와 기독교적 관점의 문헌연구(박현식, 전석재, 2011; 강경미, 2013) 등이 그것이다.

(5) 연구주제별 발표 동향

조손가족의 연구는 대상별 주제가 뚜렷하기 때문에 주제 또한 연구 대상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10년 이전 연구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던 손자녀 양육태도나 양육스트레스, 삶의

질 등이 계속해서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손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조부모 대상 연구(김한호, 우국희, 김동진, 2012), 코칭접근(정은미, 2010)이나 사회적 자본 관점(김승희, 2016), 목회적 관점(안유숙, 2016) 등이 수행되었다.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꾸준히 이루어졌으며(오경석, 2010; 정은미, 2010; 김경호, 소순창, 2011; 안유숙, 2016; 신명주, 2019), 선행 연구들이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자조모임이 필요하다고 한 제언에 따라 조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한 연구도 2010년 이전에 비하여 활발히 이루어졌다(서홍란, 김양호, 2010; 정은미, 2010; 김혜경, 2012; 원성원, 2016; 김현경, 2017).

손자녀 연구 역시 조손가족 손자녀의 자아존중감, 우울, 성인역할 등 손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꾸준히 다루어지고 그 수도 증가한 한편(이창식, 2010; 양순미, 이윤화, 2010), 조손가족 손자녀들의 학교생활(이윤화, 2010)이나 학습준비도(박희숙, 2012), 대인관계에서의 경험하는 외로움(이옥주, 2019) 등 환경에 적응하는 척도를 외부 환경 관련 변수로 확장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손자녀의 발달과정에 따라 대상이 유아(학령 전), 아동(초등학생), 청소년(중·고등학생)등으로 나뉘어 각 대상을 한 연구가 이루어진 점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조손가족 유아의 행동양상이나 자아존중감 등을 양적 연구로 살펴보았고(박희숙, 2012; 김고은, 2015), 아동을 대상으로는 미술치료(안재희, 2018; 김혜진, 2018)나 모래놀이치료(심희옥, 2012, 2016)와 같이 치료 적용 연구가 이루어졌다. 청소년 또한 조손가족 청소년 대상의 에듀케어 프로그램(곽윤정, 2015)이나 가족 레질리언스(정민자, 2016), 대인관계에서의 외로움(이옥주, 2019) 등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녀의 가족치료적 접근을 주장한 선행 연

구들의 제언에 따라 조손간의 의사소통(주경은, 권미지, 2013), 가족기능 향상(박윤미, 전수경, 2014), 가족관계경험(김미영, 윤혜미, 2015), 가족의 의미(염지숙, 염지혜, 2015) 등 가족과 가족기능에 관련한 연구들도 시도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10년 이후에는 조손가족 세대전체, 즉 조손가구 또는 가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여 조손가족을 위한 지원방안, 사례관리, 실태조사, 시범사업 등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하거나 지원방안의 통합방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승희, 2016). 특히 윤혜미, 장혜진(2012), 박선희, 조계표(2019)는 조손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면서 간과되고 있는 2세대와의 가족 재결합에 대한 희망과 좌절을 연구했다.

지금까지 분석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조손가족 연구의 연도별, 대상별, 연구 방법별 동향을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조손가족 연구의 발표 연도별, 대상별, 연구 방법별 동향

등재지		대상별		손자녀유형		연구방법별	
2010	12	조부모	22	초등학생	10	양적	35
2011	14	조부	0	청소년	12	질적	29
2012	10	조모	9	초등학생+청소년	4	혼합	5
2013	6	손자녀	29	취학 전 아동	3	문헌	8
2014	8	조부모-손자녀	6	합계	29	합계	77
2015	6	조부모-부모-손자녀	0				
2016	7	성인자녀	0				
2017	4	세대전체	10				
2018	4	제3자	1				
2019	4	합계	77				
2020	2						
합계	77						

2) 연구 대상별 심리상담적 제언

향후 조손가족 상담의 방향을 위해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나 이 연구들이 어떠한 제언을 했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된 조손가족 연구의 제언들 중 심리상담적 제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조부모 대상 연구의 제언

조모 대상 연구를 포함해 조손가족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심리상담적 제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 조부모의 개별 특성에 맞춘 전문 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이정화, 최원규, 2012; 김예성, 인훈, 박채희, 2014), 그들의 인생 배경에서 손자녀를 맡게 된 일의 연속선상에 있는 맥락에서 조부모 내면에 대한 개입(황미진, 정혜정, 2014; 김예성, 인훈, 박채희, 2014), 특히 문제를 내재화하거나 내부귀인하려는 노인들의 특성에 대한 고려(김세영, 2015), 우울, 불안, 분노 등의 정서를 다루어 자아존중감 및 자아분화의 향상을 위한 개입(정은미, 2010; 김명희, 김신희, 2015; 김세영, 2015)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조부모의 문제가 아닌 강점이나 긍정적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주장이 많았다(서홍란, 김양호, 2010; 오경석, 2010; 유길준, 2016; 장영은, 2016). 둘째, 교육과 정보전달, 사회적, 정서적 지지의 효과가 있는 조부모 자조모임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었다(이윤화, 김동기, 2011; 황명진, 2011; 김혜경, 2012; 황미진, 정혜정, 2014). 셋째, 사회적 지지자원에 관한 것으로 부모 역할을 보완해주는 자원봉사자나 지역사회 지원(이윤화, 김동기, 2011; 유길준, 2016; 장영은, 2018), 부모세대 역할 가능한 전담 전문가의 상담(황명진, 2011), 가족원이나 친척 등의 대안 가족(이정화, 최원규, 2012.) 등이다. 넷째,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다. 특히 의사소통과 손자녀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양육방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연구자들 의해 제기 되었다(송유미, 이선자,

2011; 황명진, 2011; 김한호, 우국희, 김동진, 2012; 장영은, 2016; 신명주, 2019). 다섯째,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는 조부모의 심리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손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손자녀와의 관계개선, 의사소통 향상, 정서적 유대 및 친밀감을 향상하는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정은미, 2010; 이윤화, 김동기, 2011; 황미진, 정혜정, 2014; 유길준, 2016).

(2) 손자녀 대상 연구의 제언

손자녀 대상 연구의 심리상담적 제언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손가족 손자녀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이다(이옥주, 유금란, 2019). 부모와 이별하게 된 일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상담(안은영, 김춘경, 여인숙, 2011),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슬픔에 공감하고 그 표현하도록 하는 것(주소희, 이정은, 권지성, 2010), 소외감을 다루는 것(정민자, 2016), 특히 여아들의 경우 우울감 등(최혜지, 2010) 성차에 따른 정서적 지지와 대처기술 지원(정혜원, 2013) 등이다. 조손가족 손자녀의 내적 갈등 단계를 갈등단계, 인식단계, 성장단계임을 밝혀 상담 목표선정과 전략에 활용한 연구(안은영, 김춘경, 여인숙, 2011)와 이들을 대할 때의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장동임, 2011)도 있었다. 둘째, 조손가족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 학업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관련하여 배움사다리, 에듀케어 프로그램 등의 효과와 함께 학습상담을 통해 학업에 흥미를 갖고 학업 성과를 내도록 돕는 상담이 제안되었다(박경애, 이무영, 강기정, 2012; 박윤정, 2015). 셋째는 조손가족 손자녀들의 인적 자원에 관한 것으로 성인 역할 또는 중간세대 역할을 제공하는 중요한 타자의 존재의 강조이다(박경애, 이무영, 강기정, 2012; 윤주영, 고보선, 2017). 교사(주소희, 이정은, 권지성, 2010), 형제(김숙경, 2011), 자원봉사자, 지역아동센터 교사, 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 자원(천미영, 김희정, 2011) 등의 가능성과 함

게 또래들과의 관계(이옥주, 유금란, 2019)의 영향력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큰 상황에서 이들을 공감해주며 강점 관점으로 개입하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는 상담과 상담사에게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윤주영, 고보선, 2017). 넷째, 조부모와의 친밀감이다. 가족치료적 개입(천미영, 김희정, 2011; 김미영, 윤혜미, 2015),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이옥주, 유금란, 2019) 등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손가족 손자녀들에게 자아존중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편견, 낙인감 등을 다룰 것을 제언한 것이다(이윤화, 2010; 안은영, 김춘경, 여인숙, 2011).

(3) 조손가구 및 기타

조손가구를 연구하거나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 또는 제3자와 관련된 연구들의 제언 또한 대동소이 하여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조손가족을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 통합 사례관리 통한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 지역사회자원 활용 네트워킹 필요성 그리고 가족기능강화에 대한 제언이다. 이 외 가족재결합 서비스와 사례관리의 팀접근, 사례 기록과정 관리 및 교육과 수퍼비전에 대한 제언, 조손가족 지원방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제언 등이었다.(윤혜미, 장혜진, 2012; 박수선, 2013; 박선희, 조계표, 2019).

정부에서 2011년에 조손가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희망사다리 프로그램을 평가한 논문은 조손가족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배움서비스, 가족 단위 통합서비스(교육, 상담, 문화, 정보제공 등), 지역사회 멘토-멘티 연계 및 자원 연계, 자원봉사활동 등을 두고, 키움서비스(가사 지원), 주거환경지원, 장학 지원 및 지역 특성화사업 등은 선택사업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건강강정지원센터에 통합적 시각과 가족관점을 갖는 전문성을 갖춘 조손가족 전담인력(가칭 가족코치)을 둘 것을 제언했다(송혜림, 김유경, 조영희, 2012).

3. 최근 조손가족 연구 동향의 핵심

지금까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조손가족 관련 연구의 동향과 제언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로써 이 시기의 국내 조손가족 연구 동향을 다음 두 가지 경향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2010년 이후 국내 조손가족 연구는 조손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적으로 상담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손가족 초기 연구들이 조손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강조점을 두었으나 특례법이나 시범 사업 등 실제 정책의 반영을 통해 연구자들은 그동안 제언한 정책이 지나치게 거시적이었다는 것과 조손가족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전자의 이유로 조손가족 연구의 수는 주춤한 것으로 보이나 후자는 조손가족을 위한 복지 실현에 심리상담적 정책이 필수라는 인식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조손가족 연구에서 손자녀 대상 연구가 늘어난 것 또한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조부모 세대에 쏠려있던 관심이 심리·정서적인 도움이 절실한 손자녀에게로 옮겨지면서 손자녀 대상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며 손자녀 대상 연구에 질적 연구가 주로 수행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2010년 이후의 연구들이 주장한 심리상담적 제언은 조부모 대상으로는 상담의 교육적 정책을 강조했다면 손자녀 대상으로는 정서나 관계에 초점을 둔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조손가족 연구는 조손가족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심리상담의 중요성과 함께 최신 조손가족 연구들은 조손가족이 온전히 기능하고 유지되기 위한 가족기능 향상에 주목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앞에서 보았듯이 조손가족 연구는 최근으로 올수록 대상에 상관없

이 의사소통이나 가족관계경험, 가족기능향상, 가족의 의미 등을 활발하게 다루었다. 이는 조손가족의 결핍과 문제에 초점을 두던 관점이 조손가족을 하나의 가족 유형으로 인정하는 관점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조손가족이 가족해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대안이 되는 가정’이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증거이다(이명용, 김승희, 2014).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조손가족이 하나의 가정으로서 지속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사회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김미영, 윤혜미, 2015; 신명주, 2019) 최신 연구들은 이에 대한 답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국내 조손가족 연구는 ‘상담 지원과 정책’ 그리고 ‘가족기능’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연구 동향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상담, 특히 하나의 가족으로서 이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문적인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기능’은 향후 조손가족을 위한 상담 방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가족기능은 가족연구에서 가족을 ‘체계’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전한 개념이다. 가족문제나 개인을 가족이라는 체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이후로 학자들은 가족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해 왔으며 가족기능의 핵심은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었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대체로 가족기능을 구성하는 대표 요소로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을 드는데,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 결속이나 의존 또는 가족이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은 모두 가족 상호작용 중에서도 ‘의사소통’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가족기능을 위한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다룬다(서지은, 김희정, 2012; 박진희, 김유숙, 이운선, 2013).

조손가족 연구에서도 가족기능과 관련된 연구, 특히 의사소통을 강조한 연구가 있다. 이지영과 이혜원(2011)은 조손가족이 조부모와 손자녀

의 세대 단절에서 오는 구조적 결손으로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쉬우나 실제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은 이러한 구조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의사소통을 조손가족 가족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에서 의사소통기술 훈련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보영과 조희선(2011)은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에서 조부모의 심리정서적 안정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조부모들은 사회적 지지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조부모에게 부모 기능을 보충하는 접근보다는 손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높여 손자녀와 정서적 유대를 강하게 하는 접근이 궁극적으로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을 향상하는 전략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 또한 정서적 지지와 친밀감에 초점을 맞춘 의사소통 향상을 꾀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며 조손가족을 위한 상담이나 프로그램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참여해야한다고 보았다.

또,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을 회복하는데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 접근과 조정 과정의 제도적 지원을 주장한 연구도 있었다(박수선, 2013).

4. 가족기능에 관한 성경적 관점과 룯기에 나타난 가족기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조손가족을 위한 상담의 주안점은 이들의 가족기능 향상에 있다. 이제 이를 위한 기독교 상담의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독교 상담, 특히 성경적 상담은 성경의 충본성을 토대로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여기므로 먼저 가족기능, 그 중에서도 조손가족과 관련된 가족기능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최초로 고안하신 제도이기에 가족기능의 본질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주신 성경이라는 설명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성경은 영혼과 실제 삶의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가족기능을 이해할 때 여기 실제 하는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엄예선, 2007; Powlison, 2012).¹⁾ 성경에서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곳은 여러 곳이지만 본 연구는 성경의 룯 이야기를 통해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을 논하고자 한다. 조손가족의 형성을 부모세대의 부재 또는 부모세대의 가정해체로 인해 '남게 된 자' 들이 다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룯기의 이야기 또한 중축이 되는 가족 구성원을 잃은 '남은 자' 들이 가정이 되어가는 여정으로 시작한다는 점과 남은 자들 중 노인이 있다는 것이 조손가족과 닮았다고 볼 수 있어 소위 결손가족의 가족기능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남겨진 가족이 조손가족은 조부모와 손자라는 점, 룯의 가족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점은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시대에 상관없이 가장(家長) 세대의 부재로 인한 가족 해체는 위기로 여겨져 왔다. 가족 해체라는 위기에서 시작한 룯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가족기능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해체의 과정을 통과하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가는데 이는 조손가족과 같은 위기 가정을 위한 상담 방향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룯기를 통해 가족기능으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 바로 가족 지속성과 돌봄으로 회복하는 안식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자.

1) 가족 지속성

Luther Seminary의 교수였던 Diane Jacobson(2013)은 룯기를 가족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로 보는 통찰을 제공하였다. 먼저 Jacobson

1) Johnson(2012)의 편집저서에서 중 Powlison이 기술한 부분을 인용

은 롯기는 가족을 기존의 혈연 중심의 개념이 아닌 사랑과 헌신, 충성의 상호 관계로 재정의 한다고 보았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롯,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가 가족을 재정의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롯이 '가족이 되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가족의 새로운 정의가 시작되며, 나오미는 롯을 가족으로 수용하고(룻 2:2), 보아스는 롯의 초대를 받아 들어 혈연 이상의 책임을 이행하게 된다. 결국 나오미, 롯, 보아스가 서로를 연결해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이다(Jacobson, 2013).

모든 인물들의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보아스는 고엘로서 이 가족을 유지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후에 태어난 롯의 아이 역시 나오미의 고엘이 되는 의미가 있어 결국 서로를 보호하는 연결고리를 통해 세대를 이어가며 가족은 '지속' 된다. 가정을 지속하는 것이 고엘, 즉 구원자의 주요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가 논하고 있는 주제인 가족기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가족이 지속되는 것, 그것이 가족기능의 본질이며 구원자는 이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구원자는 가족이 지속되는 기능을 통해 구원을 성취한다. 이는 비단 롯 가족의 이야기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결국 롯기는 나오미, 롯, 보아스의 개인적인 구원 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 세계의 구원을 이야기한다(Jacobson, 2013). 나오미, 롯, 보아스 각각 역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가족을 유지하고 지속하여 하시는 일은 모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말하고 있다(Moore, 2019). 롯기는 가족이 유지되는 일이 핏줄을 넘어 사랑과 헌신의 상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지속되는 이 일은 온 세상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일임을 보여준다. Jacobson(2013)은 이 세상의 구원은 롯기에서 새롭게 정의된 가족 개념에 달려 있다고 피력한다. 혈연과 비혈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족은 구원을 위한 것이며(Moore, 2019) 구원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기에 가족이 유지되는 지속성은 가족기능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가족기능은 룯기에서 새가정 즉 '새롭게 이루는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요약하면 룯기는 구원을 위해 가족이 지속되는 것이 가족기능이며 그 방법은 새 가정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 돌봄을 통한 안식의 회복

두 번째로 룯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족기능은 '돌봄을 통한 안식의 회복'이다. 양은영(2014)은 구약에서 안식은 적이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의 쉼, 땅에서의 정착 등을 의미하나 룯기에서는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정착한다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성인 남자 가족을 얻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양식과 처소는 물론 사회적인 보호 기능까지 룯과 나오미가 처음에 완전히 상실했던 것이 회복되어 갔다는 의미가 있다. 즉 룯기는 가정이 단순히 쉼을 제공하는 안식처라는 의미를 넘어 각 가정에 존재하는 상실과 결핍이 풍요롭게 회복하는, 회복이라는 가족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룯의 이야기에서 안식을 회복하는 여정은 가족기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을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돌봄'으로, 안식의 회복이라는 목적이 돌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나오미와 룯이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돌봄, 보아스가 제공한 공동체와의 연합되는 돌봄, 더 나아가 보아스와 룯의 자녀인 오벳이 미래의 가장으로 나오미의 노년을 돌보는 예언적 돌봄이다(고창룡, 2020). 많은 학자들은 룯기의 돌봄을 헤세드 관점에서 분석해 왔는데, 헤세드는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에게 자발적으로 베푸는 은혜'라는 점에서 자발적이라는 것과, 유일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고창룡, 2020).

룻의 이야기에서 룻과 나오미는 서로에게 베푼 돌봄으로 안식의 회복의 시작점을 이루었고, 보아스는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돌봄을 제공했다. 가장을 잃고 공동체와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 수 밖에 없던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공동체와의 연합까지 회복하게 된다. 공동체 또한 룻과 나오미를 수용하였으며 더 나아가 함께 삶을 공유해(룻 4:17) 분리에서 연합으로 공동체와의 관계가 회복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룻기가 가르쳐주는 가족기능은 상실이 회복되는 의미의 안식이며, 그 안식은 돌봄을 통해 시작해 공동체와의 연합까지 이룬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혼자서는 회복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삶과 회복의 원리이며 곧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주신 가족기능인 것이다.

5. 조손가족을 위한 기독교 상담의 방향

지금까지 성경, 특히 룻기에서 가르쳐주는 가족기능을 살펴본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인 조손가족을 위한 기독교 상담의 방향을 찾기 위함이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조손가족을 위한 기독교 상담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인간과 문제를 이해하고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는 상담이며(김준, 2021), 기독교적 관점의 원천인 성경은 가정의 본질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다. 따라서 조손가족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기능을 하도록 돕는 기독교 상담은 조손가족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 된다. 이제 앞에 논의한 성경적 가족기능을 조손가족을 위한 기독교 상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가족 지속성'의 적용

가족 지속성이라는 가족기능 측면에서, 이미 조손가족은 조부모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손자녀를 맡아서 하나의 가정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가족의 지속'이라는 높은 가치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조부모들은 자신들이 이미 가족 유지를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얼마나 가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할 만큼 여유가 없어 지각하지 못하거나 소외되기 쉬운 환경에서 지지자원이 약하므로 상담은 조손가족의 형성에 이미 조부모의 이러한 의미 있는 기여가 있었음을 알게 하며 격려와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은 이미 가족이 지속되는 중요한 역할을 부지중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현재 그들의 가정을 '남은 자들이 어쩔 수 없는 가정'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노년기에 손자녀를 키우며 사는 현실은 여러 가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고통에 가리어 보지 못하는 것을 결국 상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가족의 지속성 관점에서 그들의 기여를 인식하게 하면 현재 가정을 보는 관점을 좀 더 멀리, 높이 가져가는 계기가 되어 결핍된 가족에서 앞으로 많은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의 '새 가정'이라는 관점을 갖게 할 수 있다. 즉, 룯기가 그러했듯이 이 상담을 통해 조손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이루어지며 인지적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이들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게 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진리이며 사실이다.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므로 이들의 마음에는 자유가 임하게 될 것이다. 상담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며, 마음은 인간 존재의 핵심이므로 결국 조손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다루는 이 일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조손가족의 결손에 초점을 둔 시선이 하나님 관점으로 옮겨가며 이 가족이 구원을 향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새 가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이들의 자존감의 회복은 물론 가족 간 관계를 통한 응집력과 적응성 모두 회복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들이 속한 가정을 보는 관점을 진리로 바로 잡았기 때문이다.

2) '돌봄을 통한 인식의 회복'의 적용

앞에서 논의했듯이 가장을 잃은 결손 가족이었던 룯과 나오미는 서로를 유일하게 돌볼 수 있는 존재였으며 그 돌봄은 자발적이었다. 인식의 회복이 여기에서 출발되었다는 점에서 조손가족을 위한 가족상담은 조와 손이 서로에게 돌봄의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현실적 인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하도록 돕고, 각 조손가족이 처한 상황에서 회복을 정의하고 그 회복을 이루어 가기위해 이러한 돌봄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의미의 고취와 함께 실행을 구체적으로 돕는 것에 적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각 조손가족의 사회적 지지를 탐색하고 보다 적극적이고도 가까이 공동체의 도움을 받도록 촉진하여 보아스가 제공했던 돌봄의 역할을 상담이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룯기가 제시하는 영적 공동체와의 연합이라는 가족기능을 고려한다면 교회를 비롯한 영적 공동체와의 접점을 확인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손가족에 대한 사례 연구는 조손가족 형성 후 영적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소외된 조손가족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영적 공동체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족 기능을 온전히 해나가는 조손가족 사례도 보고하고 있는데(박안나, 2020), 이들이 영적 공동체에서 소외의 길을 택하는 데에는 가족 지속성 관점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보는 인식의 결여라는 원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조손가족을 위한 기독교 상담은 조손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다루어 자신들이 속한 가정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 관점으로 옮겨가 자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기쁨을 맛보고 더 나아가 영적 공동체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일이 분명한 방향이라 하겠다.

3) 조손가족을 위한 기독교 상담

기독교 상담에서 상담 목표는 기독교 세계관과 분리될 수 없으며, 기독교 상담 사례개념화는 기독교적 정체성이 반영된 상담 목표를 강조한다(전요섭, 2017). 구체적인 상담 목표는 사례개념화에서 나오는데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조손가족을 위한 기독교 상담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사례개념화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현장에서 개별 조손가족의 주호소 문제는 각각 다르지만 각 상담에서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관점에서 이들의 부적응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을 근본적으로 돕는 사례개념화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의 마음 속 '가정에 대한 생각'을 탐색하여 가족의 지속성과 돌봄, 인식의 회복과 공동체와의 연합 등을 고려하여 이 생각으로부터 나온 행동양식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은 각 개별 조손가족이 처한 문제의 해결을 돕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조손가족을 위한 상담은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에게 이러한 적용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특히 조부모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룯기에서 인식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 역시 나오미였는데, 늙고 모든 것을 상실한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의식'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커다란 목적에 닿는, 회복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양은영, 2014). 조손가족 상담이 개인수준에서 시작하다면 먼저 조부모의 마음을 다루고 이 후 조부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손자녀나 간접적으로 받는 성인자녀까지 포함하는 가족상담으로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확장해 나갈 때 조손가족을 위한 가족상담이 가장 효과적이고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손가족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할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손가족 손자녀들을 연구한 많은 연구들이 손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으로 교사나 친구, 복지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나 기독교 상담사 역시 성경적 가족기능의 회복을 돕고 영적 공동체와 연결함으로써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직접적인 개입이나 계시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를 돌보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룯기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의 주체이심을 알고 알게 하는 과정이 조손가족을 위한 기독교 상담의 핵심이다.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최신 연구 동향의 파악이 정책 제안의 기초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학문 활동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 동향 분석이 부재한 2010년 이후의 조손가족 연구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향후 기독교 상담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해 상담현장에 적용하는 고찰을 목적으로 하였다(김계원 외, 2011).

최근 조손가족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기능이라는 핵심 주제가 도출되었고, 가족에 대한 참 매뉴얼인 성경을 통해 가족기능의 본질인 가족 지속성 기능과 돌봄을 통한 안식의 회복 기능을 고찰하여 조손가족을 위한 기독교 상담 방향에 적용하는 제안을 하였다. 지난 10여년간 기독교 상담과 관련한 조손가족 연구 3편이 있었고 이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와 조손가족의 연결을 주장하였는데(박현식, 전석재, 2011; 강경미, 2013; 안유숙, 2016) 본 연구의 결론 또한 교회와 같은 영적 공동체에 시사점을 제공하며 그 연결을 위한 기독교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기능이 조손가족 내에서 유지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경적 가족기능에 대한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독교 상담과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하며 이를 앞에서 논의한 보아스의 역할로 본다면 조손가족을 위한 사역에서 기독교 상담과 교회의 역할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조손가족의 종합적인 연구 동향을 다룬 논문이 한 편도 없는 상황에서 최근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조손가족을 위한 기독교 상담의 방향을 제시하되 성경적 가족기능을 성경 속 룯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 적용을 논의함으로써 조손가족을 위한 가족상담에서 성경적 가족기능의 구체적 적용을 고찰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 다문화 가족을 위해 주로 적용되던 룯 이야기를 조손가족과 같은 결손가족의 회복에 적용한 것도 신선한 접근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손가족을 위한 기독교 상담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거나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되는 등의 후속 연구가 수행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강경미 (2013). 조손가족의 위기문제와 기독교상담. *성경과 신학*, 65, 75-101.
- 강미희 (2011). 사회복지서비스 컨설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조손가족 실태 조사를 활용하여. *경영컨설팅연구*, 11(2), 69-94.
- 고창룡 (2020). 룯기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원리와 모델. *기독교사회윤리*, 47, 103-137.
- 곽윤정 (2015). 저소득층 조손가족 대상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261-281.
- 김경호, 소순창 (2011).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양육지원요구와 영국 사례를 토대로 한 정책적 개선방안, *한독사회과학논총*, 21(2), 117-142.
-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 (2011). 심리상담학의 최근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21-542.
- 김고은 (2015). 조손가족 영유아의 행동양상과 지원방안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5(4), 329-346.
- 김명희, 김신희 (2015). 조손가족 조모의 자아분화 상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9(3), 233-246.
- 김미영 (2010). 조손(祖孫) 관계의 전통과 격대(隔代) 교육. *실천민속학연구*, 16, 55-84.
- 김세영 (2015).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가 조손가족 조부모의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5(2), 262-270.
- 김숙경 (2011). 일 지역 일반가정 및 조손가족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차이와 그 영향 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9, 1-20.
- 김승희 (2016).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문제 해결 방안. *육아정책연구*, 10(1), 1-30.
- 김예성, 인훈, 박채희 (2014). 조손가족 노인들의 운동참여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2(3), 249-261.
- 김원경, 전제아 (2010).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조손 관련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53-671.
- 김준 (2021). *성경적 상담과 하나님 관점의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그리스.
- 김한호, 우국희, 김동진 (2012).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조모의 양

- 육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연구, 1-2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 김현경, 강영숙 (2017). 사회복지조직에서 실천하는 조손가족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16(1), 65-91.
- 김혜경 (2012).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상호지지 집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1), 45-69.
- 남수경 (2019). 신혼기 부부의 이혼 전 상담에서 주체의 인정과 변형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연세상담코칭연구**, 11, 9-26.
- 민기채 (2011). 조손가구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韓國老年學**, 31(2), 321-341.
- 박경애, 이무영, 강기정 (2012). 조손가족 청소년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59-75.
- 박선희, 조계표 (2019). 조손가족 실태에 대한 공법적 검토-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土地公法研究**, 85, 413-429.
- 박수선 (2013). 조손가족 기능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실천 과정 기초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41-57.
- 박안나 (2020).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 분석 : 기독교 상담 관점의 질적 사례연구. **충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윤미, 전수경 (2014). 조손가정 가족원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21(5), 1021-1040.
- 박진희, 김유숙, 이윤선(2013). 가족기능평가를 위한 임상평정척도 개발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1(2), 257-287.
- 박현식 (2010). 조손가족의 특징과 손자녀 양육지속의사에 관한 질적연구. **韓國老年學**, 30(3), 779-791.
- 박현식, 전석재 (2011). 조손가족을 위한 사회적, 선교적 실천에 관한 연구. **선교신학**, 26, 99-120.
- 박희숙 (2012). 조손가족의 경제적 환경, 조부모의 양육태도,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幼兒教育學論集**, 16(4), 53-70.
- 서지은, 김희정 (2012).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0(3), 457-486.
- 서홍란, 김양호 (2010).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강점기반 집단교육 프로그램

- 개발 및 평가. *노인복지연구*, 47, 161-186.
- 송유미, 이선자 (2011). 조손가족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적응유연성의 관계 -자
아존중감, 공감, 내,외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329-353.
- 송유미, 이선자 (2011).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 사회적 지
지와 대처행동의 조절효과. *韓國老年學*, 31(3), 795-811.
- 송혜림, 김유경, 조영희 (2012). 2011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손가족 지원 시범사
업의 성과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83-107.
- 신명주 (2019).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양육경험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지*, 19(6), 655-662.
- 심희옥 (2016). 학업이 힘든 조손가족 남아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연금술
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9(4),
423-446.
- 안유숙 (2016).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과 목회적 돌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2), 137-170.
- 안은영, 김춘경, 여인숙 (2011). 조손가족 손자녀의 적응과정. *청소년학연구*,
18(9), 147-168.
- 안재희 (2018). 미술치료가 조손가족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정서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 2018(10), 131-132.
- 양순미, 박옥임 (2010). 농촌 조손가족 손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 작용하는 요
인 및 정책적 함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0(1),
83-93.
- 양은영 (2014). 안식을 통해서 본 윗기연구. 장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예선 (2007). *한국 교회와 가정 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염지숙, 염지혜 (2015). 한부모 가정 유아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조모와 손자녀
의 삶을 통해 본 가족의 의미. *幼兒 教育學論集*, 19(3), 319-342.
- 오경석 (2010).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생이야기와 손자녀 양육경험.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3), 65-84.
- 원성원 (2016). 노인관계와 예술심리치료 : 확장된 모성역할로서의 조손가족
여성노인의 가족관계 중심으로, 95-120.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추
계학술대회*.
- 유길준 (2016).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유연성 연구. *인문사회* 21, 7(3), 23-40.
- 윤주영, 고보선 (2017). 조손가족 손자녀의 성장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한국*

가족복지학, 56, 69-104.

- 윤혜미, 장혜진 (2012). 조손가족의 삶 : 쟁점과 지원방안. **아동과 권리, 16(2)**, 259-288.
- 이명용, 김승희 (2014).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원방안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19(3)**, 549-572.
- 이성혜 (2015). 룯기에 나타난 헤세드. **개혁논총, 33**, 9-39.
- 이영애, 방은령 (2018). 조손가족과 공동양육 조부모의 양육에 관한 질적 연구 내용 비교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491-518.
- 이옥주, 유금란 (2019). 조손가족 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0(2)**, 303-332.
- 이윤화 (2010). 조손가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낙인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137-158.
- 이윤화 (2010). 발달단계 구분에 따른 조손가족 손자녀의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영향 요인. **人文社會科學研究, 29**, 128-168.
- 이윤화 (2011).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조부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2.
- 이정화, 최원규 (2012). 사회적 지지가 농촌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4)**, 419-439.
- 이지영, 이혜원(2011). 조손가족의 가족기능과 의사소통이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32**, 205-233.
- 이창식, 박미자, 장은순 (2010). 조손가족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1-20.
- 장동임 (2011). 조손가족 학생의 소통방식 및 자아관에 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4(1)**, 187-230.
- 장승옥, 권은정 (2010). 조손가족의 문제점과 지원방안. **한국사회과학연구, 29(1)**, 351-373.
- 장영은 (2016). 조부모의 우울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7(4)**, 1161-1181.
- 장영은 (2018). 조손가족 조부모의 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9(6)**, 1045-1058.

- 전보영, 조희선 (2011).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3), 223-250.
- 정민자 (2016).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십대 손자녀가 지각한 역경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관한 질적 분석. *복지상담교육연구*, 5(1), 21-41.
- 전요섭 (2013).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 목회상담의 방향: 한부모가족에 대한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방향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5, 1-35.
- 정은미 (2010). 저소득 조손가족의 조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코칭연구*, 3(1), 5-16.
- 정혜원 (2013). 조손가족 손자녀 성별차이에 따른 생활실태 비교. *공공정책연구*, 30(2), 61-81.
- 주경은, 권미지 (2013). 일반가족과 조손가족 간 의사소통 환경에 관한 기초 연구. *言語治療研究*, 22(4), 325-342.
- 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10). 주제발표 : 조손가족을 위한 가족사회복지실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9(1), 61-93.
- 조성호 (2003). 심리상담학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832.
- 천미영, 김희정 (2011). 조손가족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19(3), 159-182.
- 최은영 (2012). 보웬의 자아분화와 룯기신학. *목회와 상담*, 19, 188-217.
- 최혜지 (2010). 조손가족 아동의 우울에 관한 연구 아동의 성별, 차이를 만드는가?.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5-163.
- 황명진 (2011).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조손의 환경적응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5, 7-35.
- 황명진 (2014). 조손가구의 생활비원천 유형 결정요인 연구.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9(1), 149-156.
- 황미진, 정혜정 (2014).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4), 1-22.
- Jacobson, D. (2013). Redefining family in the book of Ruth. *Word & World*, 33, 5-11.
- Johnson, E. L. (Ed.), Coe, H. J., Hall, T. W., Myers, D. G., Standton, L. J., Powlison, D. A., Roberts, R. C., & Watson, P. J. (2012). 심리학과 기독교 어떤 관계인가(김찬영 역).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2010출판).

Moore, R. (2019).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김주성 역, *The Storm-tossed family: How the cross reshapes the home*). 서울: 두란노서원. (원전 2018 출판).

【 Abstract 】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of Grandparent–headed Family Studies and the Direction of Christian Counseling in the Future : Focusing on the Concept of Family Function in the Book of Ruth

Park, Ann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hristian counseling for grandparent-headed family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 trends of the relevant research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since 2010.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udies on grandparent-headed family since 2010 the “professional counseling that strengthens family functions” of grandparent-headed family was the core of the latest research trend and it came from the perspective of seeing them as A family type.

According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family function through the Bible containing the essence of the family, the book of Ruth was examined, and the biblical family function of “family continuity” and “restoration of rest through care” was derived. Therefore, Christian counseling for grandparent-headed family should be directed toward helping them regain these two functions. Specifically Christian counselors can encourage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continuity of the family, promote voluntary care and help them to unite with the community. And it is proposed to apply to case conceptualiz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nature of family counseling for grandparent-headed family and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improvement of biblical family function through the latest trends in the study of grandparent-headed family.

Key words: grandparent-headed families, Christian counseling, counseling research trends, family function, The book of Ruth

*Hessed Counseling Center / Senior Counselor